



박기순(아랫줄 왼쪽부터)·조은주·임재숙·김지현·박현숙·김영숙·김세정씨가 남도 김치 레시피 150선을 엮은 '바람과 햇살, 숨 쉬는 땅 남도김치'를 펴냈다.

“할머니·엄마의 비법으로 버무린 전라도 아짐들의 남도 김치랑께”

광주여대 김지현 교수 등 7명 '바람과 햇살·남도김치' 펴내

지역별·계절별·옛 김치 등 전통조리법 150선 소개



“게미”는 전라도 음식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다. 전라도 고향말인 ‘게미’는 ‘깊은맛이나 음식 속에 녹아 있는 독특한 맛’을 뜻한다. 게미가 있는 남도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가 김치다. 남도김치는 담글 때 쓰는 다양한 재료를 인해 깊고 진한 맛이 일품이다.

전라도 아짐들이 감칠맛 나는 남도김치 150선의 조리법 등이 담긴 책을 발간했다. 광주여대 식품영양학과 김지현(48) 교수와 함께 대학원에서 함께 남도김치를 연구해온 임재숙(59)·박기순(54)·박현숙(50)·조은주(48)·김영숙(42)·김세정(30)씨 등 모두 7명이 함께 펴낸 ‘바람과 햇살, 숨 쉬는 땅 남도김치’(백산출판사)는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전라도 토박이들의 조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김 교수와 함께 책을 펴낸 사람들은 다양한 식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로, 길게는 12년부터 짧게는 6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남도김치를 연구했다.

“이번 책은 실제로 전라도의 김치를 이 지역 토박이나 아낙네들이 할머니와 어

머니에게 배운 맛의 비법을 통해 담은 책이다. 전라도 사람이 만든 진짜 전라도 레시피를 소개하고 싶었다.”

김 교수는 제2회 광주김치축제 당시 김치경연대회를 지도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김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광주김치축제는 물론 지난 2009년부터 뜻을 함께 하는 이들과 함께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해 수백여 종류의 남도 김치를 선보이며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300쪽이 넘는 책에는 남도김치 이야기를 시작으로, 전라도 지역별 김치이야기, 남도김치의 재료 및 분량, 담그는 법, 더 맛있게 담그는 요리법 등이 사진과 함께 실렸다. 또 봄 김치 33선, 여름 김치 24선, 가을 김치 28선, 겨울 김치 13선 등 계절별 분류와 함께 비법으로만 전해오던 고조리서를 재현한 옛 김치 16건 등 다양한 김치 담그는 방법이 함께 담겼다. 책에 ‘술지(부추김치)’, ‘신건지(무동치미)’ 등 전라도의 맛을 담고 있는 김치가 전라도 방언 그대로 실리기도 했다.

이들은 책에는 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선보였던 남도 김치 중에서도 150가지의 조리법과 비법을 담았다. 김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전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



담집담’한 깊은맛을 내는 김치들”이다.

“어린 시절부터 손맛 좋은 어르신들 덕에 맛있는 음식을 늘 가까이하며 풍성한 식단 속에 남도 김치 예찬론에 푹 빠졌다. 함께 책을 쓴 모두가 어머니, 할머니께서 만들었던 김치의 맛을 기억해내며 기본적으로 20여 가지 자기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

김 교수는 원형 그대로의 남도김치와 현대의 입맛에 맞는 남도김치에 대해 고민했다. 우리 할머니가 만든 김치와 고조리서에 담긴 비법을 보존하면서도 냉장고와 생기면서 바뀐 김치보관 비법과 현대인의 입맛에 맞춘 김치 개발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마지막으로 불에 먹기 좋은 음식을 추천해 달라는 질문에 김 교수는 “봄은 감장 김치가 질리기 시작하고, 풋풋한 생김치가 그리워질 때”라며 “쌈싸름하면서도 향기가 일품인 고들빼기 김치나 냉이와 봄동 등 채소를 이용한 김치가 입맛을 살리는데 제격”이라고 조언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과 차별화된 동행... 광주비엔날레, 세계축제로 거듭나길”

정동채 대표이사 퇴임
6개월간 조직 정상화 성과
전윤철 이사장 취임
임기중 가장 기억에 남아



“짧았던 6개월이었습니다. 아쉽게는 하지만 미련은 없습니다.”

정동채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26일 오전 ‘광주비엔날레 7대 혁신안’을 최종 발표하며 퇴임 기자회견을 했다.

정 대표이사는 27일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이사회를 끝으로 공식 퇴임한다. 지난해 9월 ‘세월오월’ 전시유보 논란으로 이우우 대표이사가 사퇴하고, 뒤를 이어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와 혁신위원장을 맡은 지 5개월 10일 만이다.

‘퇴임의 변’ 원고를 들고 기자회견장에 앉은 정 대표이사는 목이 맨 듯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감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감회가 좋습니다”라고 짧게 말할 뿐이었다.

정 대표이사는 “취임 때부터 6개월 안에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놓고 물러나겠다고 약속했고, 또 그걸 지키고 싶었다”며 “6개월이라는 시간은 제 자신의 약속기도 하지만 오는 9월 전당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가 앞으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꾸러지고 3차례 회의를 했는데 서로 의견차가 커 의제조차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지’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서서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조직 정상화에 대한 확신도 생겼죠. 결과적으로 성과도 있습니다.”

정 대표이사는 재단 직원들에 대한 걱정도 내비쳤다.

그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워낙 많은 비판을 받아 거의 기력이 소진해 있었고, 예술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를 함께 진행하면서 우수한 직원들이 쉽게 움직여왔던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계약 등도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직업 안정성 문제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는 전윤철 이사장 취임을 꼽았다.

정 대표이사는 “전윤철 이사장은 앞으로 비엔날레와 광주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정보원과 창조원의 콘텐츠를 살피면서 차별화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며 “비엔날레는 전당과 함께하면서도 차별화된 세계미술축제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광주비엔날레 이사회에 이어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이 열린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전일빌딩 ‘문학관’ 백지화 환영”

지역 문학단체 성명

지역 대표 문학단체들이 전일빌딩 내 ‘빛고을문학관’ 설치 백지화에 대한 윤장현 광주시장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광주전남작가회의와 광주문인협회는 25일 ‘전일빌딩 빛고을문학관 백지화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를 통해 윤 시장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문학관 건립을 위한 후속 조치를 단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문학단체는 지난해 11월 (가칭) 광주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공동대표 강만·조진태)를 구성, 전일빌딩 내 문학관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광주문학관추진위원회는 이번 성명에서 “빛고을문학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부지 선정 의혹과 혼란을 일소하고 추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광주문학관추진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손색이 없는 단독 건물로 문학관이 건립되기를 희망한다”며 “문학관은 물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에 부지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학관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토대로 부지 선정과 공간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건립 주체는 광주시가 맡아야 하지만 각계 전문가와 대표 문인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문직여성 한국연맹 광주·무등클럽 오늘 ‘춧불의식의 밤’

전문직여성(BPW) 한국연맹 광주클럽(회장 범영순)과 무등클럽(회장 박진자)은 27일 오후 6시30분 광주신광파크 호텔 6층 로즈마리홀에서 전문직 여성들의 발전과 사회 참여 봉사를 다짐하는 ‘2015 춧불의식의 밤’을 개최한다.

1부에서는 BPW 광주·무등클럽 활동 소개 영상 상영에 이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직 여성의 멘토링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 회원인 플루티스트 백영

경씨가 축하공연을 하며 멘토링 협약식도 개최한다.

2부에서는 춧불의식과 함께 전문직 여성 세계연맹회장의 메시지가 전달된다.

춧불의식은 지난 1930년 BPW 창시자인 메디슨 필립스(Madison Philips) 박사가 창안한 것으로, 전 세계 100여개 회원국 회원들이 평등, 발전, 평화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행사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 문진수 회장 선출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5일 여성단체회관에서 제29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신임 회장으로는 문진수 대한어머니회 회장이 추대됐으며 김경란 한국여학사회 회장과 이순이 광주·전남 간호조무사회 회장이 각각 수석부회장과 제2부회장으로 선임됐다. 문진수 신임회장은 “여성단체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여성의 권익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모인 봉사 단체의 성격에 걸맞게 여성단체회관 4층 교육장을 광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5년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여성장애인인과 어려운 이웃돕기 애정사업은 박병우 광주남부경찰서 효덕지구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3월 19일까지**